

## 근대서방무신론의 특징과 제한성

리영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회의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사조들은 그 역사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도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29~430페이지)

근대서유럽에서는 반봉건투쟁시기 신흥부르주아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무신론이 발생발전하였다.

근대서방무신론은 그 발생의 사회력사적환경으로 보나 발전수준으로 보나 종래 무신론사상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근대서방무신론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근대자연과학의 성과들에 기초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는데 있다.

근대서방무신론은 이 시기 서유럽에서 연구되고있던 근대자연과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유럽에서 15-16세기 3대발견으로 불리우는 화약, 라침판, 인쇄술의 발견과 꼬삐르니끄의 지동설, 17세기 갈릴레이에 의한 력학의 성립과 뉴톤에 의한 고전물리학의 체계화, 여러 학자들에 의한 고등수학의 성립과 발전, 라부아지에와 로모노쑈브에 의한 화학의 성립, 하비와 린네에 의한 생물학의 성립은 이 시기 이룩된 커다란 성과였다.

자연과학연구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근대철학자들에게 인간의 인식활동을 저해하는 종교와 교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는것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사실 종교와 교회에 의하여 과학의 발전이 억제당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그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는것은 과학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근대서방의 철학과 과학은 무신론발전의 철학적 및 자연과학적근거를 제시하였다.

베이콘은 《2중진리설》과 《4대우상설》을 주장하여 무신론발전의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신학도 진리를 준다고 본 그의 사상은 비록 그릇된것이지만 과학과 철학을 신학, 스콜라학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신학의 간섭을 부정한것으로 하여 무신론사상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뿐만아니라 그의 《4대우상설》도 교회의 권위와 교리를 신성화하고 절대시하면서 사변적인 공리공담을 일삼는 신학을 비판하고 승려들의 독단과 전횡을 비난한것으로서 당시로서는 합리적인것이였다.

홉스의 《사회계약설》도 무신론사상의 발전에서 중요한 리론적기초로 되었다.

그의 《사회계약설》은 《왕권신수설》을 반대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리론이였다. 고대와 중세에 지배하였던 《왕권신수설》은 신의 이름을 빌어 군주의 권력을 신성화하였다.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의 계약의 결과 국가가 발생하였다는 관념론적인 국가론이였지만 교회와 그에 의하여 합리화되던 신비주의적국가론을 비판하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였다.

이처럼 근대과학과 진보적인 철학들은 비록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각이한 측면에서 다루었지만 종교교리의 허황성을 까밝힐수 있는 사상리론적전제를 마련함으로써 무신론사상이 발전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고대와 중세에 제기된 무신론사상들은 대부분 종교적현상들에 대한 단편적인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근대시기에 와서는 각이한 무신론사상들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근대서방의 무신론자들은 개별적인 종교교리와 의식들의 허황성과 기만성, 비과학성을 론증하였을뿐아니라 종교일반의 본질과 발생근원, 그 해독성과 극복방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종교문제에 대한 경험적분석이나 직관적비판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논의와 비판을 진행한것은 근대시기 무신론발전에서 찾아볼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근대서방무신론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반봉건투쟁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생 발전하였다는데 있다.

고대와 중세에 발생한 무신론사상들은 당시에 존재한 종교사상들을 이리저리하게 비판하였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폭동이나 봉건적억압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의 직접적인 사상적기치로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유럽에서 발생한 무신론사상들은 신흥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발생하였을뿐아니라 반봉건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발전하였다. 이것은 18세기 프랑스계몽주의자들인 볼테르와 루소의 무신론적견해에서 잘 나타났다.

볼테르는 신앙보다 리성을 내세우고 리신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종교계시와 신앙보다 리성이 우위에 놓인다고 하면서 신의 존재여부는 리성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신론을 제창하면서 반봉건투쟁의 사상적지침을 마련한 볼테르와는 달리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제창함으로써 종교교리를 비판하고 부르쥬아혁명의 사상리론적근거를 제시하였다.

루소는 사회적불평등이 없던 자연상태를 리상화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서 두가지를 제기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선 사회적불평등을 극복하자면 사회계약에 의한 자연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는 계약을 위반하고 인간의 자연권을 부정하면서 그들을 기아와 빈궁, 고된 로동에 몰아넣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에게는 계약을 위반하고 《자연인권》을 빼앗은 국가를 뒤집어엎고 《새 국가》, 부르쥬아민주공화국을 세울 권리가 있다.

그에 의하면 또한 사회적불평등을 극복하자면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인민이 주권자로 된다. 정부와 통치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품삯을 받는 마차부와 같다.

볼테르와 루소의 무신론적견해들은 프랑스에서 봉건절대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쥬아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상적기치로 되었다.

근대서방무신론이 반봉건투쟁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전하게 된것은 그것이 신흥부르쥬아지의 계급적처지를 반영하고있은것과 교회가 봉건적신분제를 신성화하는 주되는

세력이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근대서방무신론은 무신론사상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룬다.

고대에 발생한 무신론사상은 비록 직관적인 감각과 현실생활경험들에 기초하였지만 단편적인 견해들에 그치었다. 중세에 발전한 무신론사상들은 고대의 무신론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보충하고 발전시켰지만 리론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근대시기에 발전한 무신론사상들은 비록 그 기초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다같이 이러저러한 철학적원리들에 근거하여 각이한 합리적방법들을 리용하였다.

이것은 당대 과학들에서 광범히 적용되던 관찰과 실험, 귀납과 연역, 논리적증명과 역사적대비분석과 같은 각이한 연구방법들이 무신론연구에도 리용된 결과였다.

이와 함께 무신론자들과 신학자들사이, 신학자들호상간에 치렬하게 벌어진 리론투쟁도 무신론사상의 체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각이한 세력들사이의 교회와 교리에 대한 논쟁은 무신론사상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와 론거들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근대서방무신론은 역사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우선 근대서방무신론은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근대서방무신론사상들은 근대유물론의 철학적원리들에 기초하고있다. 근대유물론은 당대 자연과학의 성과들에 의거함으로써 사물현상들을 분석하는데서는 이전시기의 유물론에 비하여 훨씬 세련되었지만 그것은 형이상학적유물론이었다.

근대유물론자들은 종교적현상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회발전과정속에서 역사주의적으로 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특성들을 옳게 밝힐수 없었다. 이것은 근대서방무신론이 종교의 사회계급적근원을 해명할수 없었던 중요한 리유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근대서방무신론사상들은 관념론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근대도이츨란드철학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헤겔과 그 제자들은 관념변증법에 의거하여 종교적현상들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고정불변하거나 고립되어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립장을 견지하면서 종교도 그 역사적발전의 과정속에서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적현상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는 원시종교와 여러 종교들의 발생발전과정에 대한 일부 합리적인 주장들이 들어있었으며 이것은 종교교리를 부정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관념론적립장에서 종교적현상들을 대한데로부터 그것을 순수 정신적요인들에 의한 변화발전과정으로만 설명하였으며 그것을 낳고 전파시키는 현실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요인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처럼 근대무신론사상은 유물론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든 관념론자들에 의하여 제창되었든 관계없이 과학적인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지 못한 본질적약점을 가지고있었다.

또한 근대서방무신론은 신흥부르쥔아지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였다.

근대서방무신론은 해당 시대의 역사적산물이다. 반봉건투쟁과 부르쥔아혁명, 자본주의제도의 수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의 사회적변혁들은 결국은 부르쥔아지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수행되었다. 근대서방무신론사상은 철저히 자본주의제도의 수립을 지향한 부르쥔아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었다.

봉건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신흥부르쥔아지들은 신분적불평등에서 벗어

나는데서는 피착취계급과 동맹하였지만 그들의 근본요구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근로인민대중이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념원하였다면 신흥부르쵸아지들은 더 많은 경제적리윤과 무제한한 탐욕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제도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근대서방무신론자들은 봉건적신분제와 교회의 전횡은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종교 그자체를 근원적으로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 없었다. 더우기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되고 부르쵸아지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그들은 종전의 무신론적주장을 꺾버리고 도리어 교회와 타협하여 종교를 자본주의제도를 신성화하고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상적무기로 리용하기 시작하였다.